

- 공업이 망친 지구를 농업이 살린다 -

자료 : 한국토양비료학회의 토양과 비료중에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오왕근 박사 님 글 인용

금년에도 물이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드높다.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산악국이다. 남한에서 만도 국토의 65%가 산악이다. 이들 산의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가파른 암석 산이다. 그 암석은 많은 경우 땅속 깊숙이 파묻혀 있어야 할 화강암이며 그 노출 면적은 전 국토의 30%, 지구표면의 그것인 15%의 2배가 된다. 여기에 건기가 계속되다가 1년 강수량의 반 이상이 장마때 한꺼번에 쏟아진다.

사람이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며 살수는 없다. 물을 저장하는 가장 큰 지상의 그릇은 땅이다. 이 그릇 속에 담긴 흙알 사이에 물은 저장되고 그 사이를 이동 통로로 하여 산꼭대기 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저장되고 이동하는 물이 지하수이며 샘이 되고 강물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이 저장 될 만한 평탄지와 구릉지의 상당부분은 콘크리트로 덮이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으며 이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하수가 넉넉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불과 수일 동안에 쏟아지는 저 많은 장마비를 어딘가에 담아 두어야 우리는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어디에 담아 둘까? 대형 댐에? 댐은 소하천 몇 개가 합류하는 중산간에 축조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

물은 흘러내리지 기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댐위 고지대에서는 물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 그리고 일시에 쏟아지는 그 많은 물을 다 담아두려면 댐 몇 개가 있어야 하나? 다는 못 담아도 장마때 아랫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건기에 물 부족이 지금같이 심하지 않을 정도는 담아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악국이어서 농지의 대부분도 산지에 분포된다. 남한에서도 38.5%의 논만이 평탄지에 위치하니 산지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국민이 우리이다.

산지 농업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흙이 비옥하지도 못하여 단위 생산량도 낮다. 산마을 사람인 우리는 이것을 운명으로 알고 고달프게 살아 왔었고 계속 살아야 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어딜 가나 공기와 물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었다. 부족했던 때도 오염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때도 없었다. 다만 장소와 시기에 따라 물의 과부족이 있었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 있었다.

과잉이면 바다로 흘러보내고 부족하면 이웃에서 길어 오거나 끌어왔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 즉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저장하는 등의 기능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사람에 의한 가속파괴와 오염 공해가 땅과 흙의 재생력을 약화시키고 사람이 숨을 쉬기도 물을 마시기도 어렵게 하였다.

농업은 땅을 다루고 흙을 매만져 식물을 가꾸고 가축을 키워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산업이다.

평지에서는 땅이 평탄하고 넓어서 대형기계를 쓸 수 있고, 토심이 깊으며 비옥해서 생산성도 높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이기 때문에 평탄지 농업은 지구의 온난화를 억제하고 물을 정화 저장하는 등이 공익적 효능면에서는 산지농업을 따를 수가 없다.

수목의 탄소순환 능력이 농작물보다 크고 수목의 많은 줄기와 잎이 장마비의 접지시간을 늦춰 물의 유실량을 주리고 뿌리를 따라 내려가는 침투수량을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락논 또한 물을 분산 저장하여 그 손실을 주리고 지하수량을 증가한다.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에 이윤이 가해져서 결정된다. 산지농업의 생산비가 평탄지농업보다 더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단위수량이 낮고 규모가 작으니 농가당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산지를 포기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한 일이 성사되려면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 즉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 산지농업에서는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진입로가 열리지도 농지가 정리되지도, 계곡과 산록이 정비되지도 않았다.

중 소농업에 적합한 농기구의 개발도 미흡하다. 만약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대면적 영농을 피한다고 해도 대형기계가 들어 갈 수 없으니 그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업은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

평야지는 대형의 기업농으로, 중 산간지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수농업 내지 전원형 겸업 농업, 국토를 보전하고 물을 저장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고수익성 농업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과잉 생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전환기를 맞았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산지 다락논에 저수하고 때기밭에 계단을 모으며 소류지를 만들어서 빗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땅속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에서 소류지를 만드는 등 산지와 더불어 계곡을 관리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익농업으로서의 농산물의 가격을 보상하는 산지 겸업 전원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평탄지는 논의 일부를 밭으로 전환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농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인구의 도시 집중이 줄어들고 파괴오염이 경감되어 국토는 고루 개발되고 민생은 안정되는 아름답고 건전한 국가가 될 것이다.

농업은 공업과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이다.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구를 살리는 산업인데 반하여 공업은 공기, 물, 흙을 오염시키고 죽이며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

이 두 산업은 양립하거나 전자 즉 농업이 우세할 때만 이 지구는 보전되고 인간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은 독특한 지역산업이다. 공장은 아무데나 세우고 기계를 돌리면 생산하지만 농업은 아무데나 심고 비료를 준다고 생산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공산물과 똑 같이 한 개의 물건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지 농산물은 억지추향으로 돌을 쌓아 논두렁, 밭두렁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사태를 막으며 무거운 거름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내려 일해 얻은 결과물이다.

들인 공과 돈에 비하여 얻은 것이 아주 미미하다. 나보다 평지인과 도시인에게 큰 혜택을

~~~~~


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WTO에도 대처하며 지구환경 보전사업에 우리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끝)

♣ 세 사람이 한자리에 보이면 그 의견이 모두 각각 다르다.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억리하게 남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복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붓질과 같아서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깊이 들어갈 뿐이다.

. 질리는 인내와 시간이 밝혀 준다.

< 스피노자 >

~~~~~